

모리오카에서 보내는 선교 소식과 기도편지.

2022년을 맞이한지 어제 같은데 벌써 3월을 맞이했네요.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올해는 소망을 갖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전도 출발을 했지만 수그러지지 않는

또 다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이 여전히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선교지에서 기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빠른 감염으로 이곳 모리오카에 비상이 생겨 1월달 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한글학교, 그리고 2월달 미신자 12명 한국 요리 교실이 취소 되어야만 하는 실정에

선교의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안에 있는 엄마들이 한국 요리교실을 배워 미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일단

세명인 엄마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2월달에 요리 교실을 시작 했습니다.

미신자들의 모임은 오미크론이 수그러져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쁜 소식!

동역자인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신 스애자매가 성경공부 4개월만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모리오카에 와서 한 영혼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너무 기뻐합니다.

스애자매는 신앙을 위해 월요일날 성경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 신학을 마친 린다 선교사의 졸업식이 6월4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 1) 구원 받은 스애자매가 미신자인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 2) 성경 공부를 한 사야카 자매는 아직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고백을 하도록.
- 3) 모도이 형제는 예배 참석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여 주님을 영접 하도록.
- 4) 보이지 않는 구원의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선교사가 되도록.
- 5) 미국 방문 계획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동역자님들과 함께 기도로 교통하는 제임스 린다 선교사를 위해 손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일본 모리오카에서 함제임스 린다 드림